

SK에너지, CMS 강화 조직개편 검토

전략기획 수립 및 헤드쿼터 기능 본질적 역할 ... CIC 지원기능 이관

SK에너지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CMS(Corporate Management Service)의 전략수립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6월26일 “회사의 4개 CIC(사내회사) 중 CMS가 담당하던 다른 CIC 지원기능을 떼어내 각 CIC로 이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조직개편에 이루어지면 CMS는 앞으로 전략기획 수립과 헤드쿼터 기능 등 본질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SK에너지의 글로벌 역량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SK에너지는 2008년 초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영과 마케팅을 맡는 R&M(Refining & Marketing), 자원 및 화학부문을 담당하는 R&C(Resource & Chemicals), 기획 및 연구개발을 맡는 P&T(Corporate Planning & Global Technology),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4개의 사내 독립기업 CIC체제로 조직을 개편했었다.

SK에너지에서 R&M은 석유제품 생산과 영업 등을, R&C는 화학제품 생산·영업과 거래, 해외자원개발 등을 맡고 있다. 또 P&T는 기술 연구·개발(R&D) 영역과 신규사업 기획 등이 주 업무이다.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CMS는 경영지원부문과 CEO 직속부서들을 통합한 조직으로 인사·재무·법무·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27>